

수하르토 치하 인도네시아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 없는 저항': 수라바야 제화공장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좌절

전제성*

- I. 머리말
- II. 수라바야의 수출용 제화공장 빅토리
- III. 1992년 파업과 "비키클럽"
- IV. 군부의 개입과 노동자 리더십의 단절
- V. 맺음말

I. 머리말

수하르토(Soeharto) 체제가 말기로 접어들던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교육받은 소수 신중간계급의 투신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자생적 저항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빈도수로 보나 언론의 관심으로 보나 가장 두드러진 자생적 민중저항은 공장마다 발생한 산업노동자들의 파업행동이었다. 만약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노동계급이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이 자유화되었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운동가들 대부분은 자국의

* 서울대 강사

노동운동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10년 동안 주요 산업지역마다 노동운동단체(labor NGOs)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노동계급의 자생적 투쟁이 가시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하르토 시대에 파업과정에서 등장한 “노동자 리더십”(tokoh buruh)이 노동조합의 간부로 자리잡지 못하고 공장으로부터 축출 당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그 자주성을 지켜낼 수 없었고 비공식적인 노동자모임마저 파업과정에서 노출되거나 지도자들이 해고되면서 약화-해체되곤 했다. 공식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건설과 공고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노동자 리더십이 (종종 폭력적인 방식으로) 단절되었다는 점에서 수하르토 시대의 노동자 저항은 조직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화 없는 저항’이었다. 그래서 수하르토 시대 노동운동은 작업장 밖의 노동운동단체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며 민주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작업장 내 공개적인 조직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노동대중의 공개적인 조직화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직화 없는 저항’의 “결정적 사례”(crucial case, 일종의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사례”[least-likely case]: Eckstein 1975, 96-123)로서 수라바야(Surabaya)의 수출용 제화공장 빅토리아(PT. Victory Long Age)의 파업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빅토리아 노동자들은 1992년에 유력한 노동운동단체의 후원을 받으면서 세 차례나 파업을 일으켰고, 1995년과 96년에도 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 대표들은 전부 해고되었다. 저항의 횟수는 많지만 조직화 수준은 극히 낮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빅토리아의 작업조건과 노사분규를 개관한 뒤에, 1992년 10, 11, 12월 3회 연속 파업의 과정과 조직적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1992년 파업은 10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희귀한 경우이다. 지역의 군부가 파업 주동자 세 명을 납치 구

금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수라바야법률구조재단(LBHS: Lembaga Bantuan Hukum Surabaya, 이하 LBHS)이 유인물과 노사합의문을 첨부한 상세한 보고서(LBHS 1993)를 작성해 발표했고, 군인들에게 납치되었던 노동자들 중에 한 명이 입사에서 납치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상세하게 공책에 필사해 두었으며, 이 두 개의 자료를 LBHS가 보관해 오고 있었다.

수기를 작성한 노동자는 당시 27세의 여성 메삐 도리야띠 엠핑(Meppy Doryati Emping, 이하 메삐)였다. 메삐는 1992년 파업의 전면에 나섰던 16명의 노동자대표들 중에 한 명이기도 했다. 메삐의 ‘파업수기’에는 전체사원을 조직하고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대표들이 경영자와 지역군부의 합동탄압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축출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메삐의 파업수기를 기본 자료로 삼고, 노동운동단체의 보고서와 관련 활동가의 진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당시 파업의 양상과 결과를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II. 수라바야의 수출용 제화공장 빅토리

수라바야(Surabaya)시 북서쪽 판데스(Tandes) 지역의 공장 밀집지 판중사리가(Jalan Tanjung Sari)에 자리한 빅토리 롱 에이지사(PT. Victory Long Age Indonesia: 이하 빅토리)는 수출지향산업화 붐을 타고 1988년 4월에 설립된 대만과 인도네시아 합작 기업으로서 아동용 신발 제조업체이다. 대만인 조민종씨(Jo Min Jong)가 자본의 50%를 내고 인도네시아 화인(華人) 공씨(Khong Hsien Mou)가 나머지 50%를 출자했다.

1997년까지 빅토리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장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1990년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수출성과를 낸 기업들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1992년에는 4개 라인에서 10개 라인으로 규모를 확장했고, 1993년에는 대만에서 가져

오던 신발밑창(outsole)을 빅토리 공장 옆에 별도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조달하기 시작하였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포카혼타스(Pocahontas), 라이온킹(Lion King), 미키(Mickey), 바비(Barbie) 등 월트 디즈니사(Walt Disney) 아동용 신발의 30%(매달 60만족)를 제작했으며,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등 46개국에 전량 수출하였다(PT. Victory Long Age Indonesian, n.d.).

1997년부터는 굴지의 리복(Reebok) 아동용 스포츠화 주문을 수주받게 되었다. 필자가 공장을 방문했을 2001년 당시에는 생산량 중에 리복 신발이 60% 정도였고 나머지는 주로 디즈니사를 위해 제작되며 상표 없이 할인시장에 파는 신발도 소량 있었다. 최대 8천 여명까지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노동자의 90%가 “손이 쥔”(nimble fingers)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동부자바와 인근 마두라 출신이었다(Lee Yuh Lin 인터뷰, 2001/04/12).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들은 모두 여성들이 담당하고 남성들은 자재창고나 포장부 일을 한다. 사원의 연령대는 18세에서 4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지만 20~30대가 다수였다(Roika 인터뷰, 2000/07/25).

세계적인 유명상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정부고시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기업이었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최저임금에 딱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근무환경은 수하르토가 퇴진하고 노조가 결성될 때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995년에 여성노동자 빠르둔(Partun)이 필사한 노트에 빅토리사의 노동조건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빅토리 노동자들은 7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마치고 다시 잔업에 들어가 밤 8시까지 보통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허가(izin) 없이 결근하면, 기본급, 식대, 무결근수당(premi hadir)도 지급되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원진료 기록이 없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가 걸리면 급료에서 500루피아를 제했다. 봉제부와 절단부 노동

자들에게 장갑이 지급되지 않아서 재해가 자주 발생했다. 양호실에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만 나타났고, 비치된 약품은 불충분했다. 절도 혐의 외에도 규율부재, 잔업거부, 특근불참 등의 이유로 해고금(pesangon) 없이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회사측이 보험액의 절반을 책임지는 사회보장보험(Astek)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생리휴가는 허용되지 않았고, 여성노동자가 생리통을 호소하면 진통제만 주고 계속 일하도록 강요했다. 노동법에 보장된 유급출산휴가는 조장들 이외에 일반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다.

1997년에 빅토리사는 리복 운동화를 수주 받으면서 작업조건이 약간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인터뷰를 기초로 당시 빅토리사의 노동사정을 조사한 기사(Indarti 1998, 9)에 따르면, 작업조건과 처우는 별로 개선된 게 없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일당은 4,417루피아였는데, 통화위기가 시작되는 즈음이어서 미화로 환산했을 때 74센트(달러당 6,000루피아)에 불과했다. 식사와 질은 여전히 형편 없었다. 325루피아(5센트)짜리 점심이 제공되었는데, 멸건 국, 2×3×2센티(cm) 두부튀김, 템페(tempe: 발효한 콩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 식품)가 반찬의 전부일 때도 있었다. 저녁에는 밥에 마른 생선과 칩(chips)을 얹은 싸구려 봉지밥(nasi bungkus)이 지급되었다. 당시 노동자 4,500명을 위한 화장실은 23개뿐이었다. 여전히 보호용품인 마스크와 장갑이 지급되지 않았다.

빅토리사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에 저항하여 수하르또 체제하에서 7년간 여섯 차례 파업을 감행했다.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구하면서 1992년 10월 처음으로 파업을 감행한 이래, 11월과 12월에 연이어 파업을 일으켰고, 주동자 16명이 해고되었다. 1996년에는 민중민주당(PRD: Partai Rakyat Demokratik)의 판데스 지역 노동자시위에 때를 맞추어 파업을 일으켰으며, 1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9월에 다시 “예쁜 여직원만 좋아하고 독단적인” 현지인 인사부장을 퇴사시킬 것을 요구하며 1주일간 파업을 벌였다. 1998년 수하르또 퇴진

직전에도 임금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파업을 일으켰다. 빅토리아 노동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저항했고 일부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기도 했지만, 수하르토가 퇴진할 때까지 노조를 건설할 수 없었다 (Roika 인터뷰, 2000/07/25, 2001/04/12).

III. 1992년 파업과 “비키톨런”

수기를 작성한 메뵘(Meppy Doryati Emping)은 1965년 3월 2일에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으며, 1992년 4월 28일부터 빅토리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취미가 “친구 사귀는 일”(berkawan)이고 모든 일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녀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별도의 표시 없는 인용은 수기의 표현들이다). 입사 후 2개월간 포장부에서 일했고 그 후에 마감부로 배치되었으며 곧 “완제품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DOZ) 기기의 운전보조(pembantu mandor)로 승진되었다. 마감부에서 일하면서 여성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들과도 폭넓게 사귄 수 있었다.

입사 4개월째에 접어들던 때 (대략 8월말에서 9월초로 추정되는데) 메뵘은 같은 회사의 남성노동자 이맘 바수끼(Imam Basuki, 1970년생, 당시 22세, 이하 이맘)로부터 노동자 소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는다. 메뵘은 신입사원이라서 아직 사람들이 낯설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이맘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거절하기도 마땅치 않고 호기심도 발동하여 메뵘은 이맘을 따라 노동자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노동자들의 숙소를 돌며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모임에서 작업장의 문제들이 토론되고 기록되었다.

개선되어야 할 바들이 정리되자 노동자들은 수라바야법률구조재단(LBHS)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노동법에 관해 교육받기 시작했다. LBHS는 인도네시아 최강의 인권단체인 법률구조재단(YLBHI : 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의 수라바야 지부이다. LBHS는 1990년부터 두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노동분과를 개설하여 노동법 무료상담과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노동분과는 이랑게 혈통으로 말랑(Malang)에서 성장한 젊은 변호사 무니르(Munir, 1965년생)가 이끌고 있었다. 무니르는 논리정연하고 열정적인 화술을 구사했으며 휴일에도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헌신적인 조직가였다. 무니르는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노동자 숙소를 방문했고, 수라바야 시내를 물론이고 시도아르조(Sidoarjo)와 말랑 등지의 노동자들까지 조직했으며, 이들과 종종 밤을 지새우면서 토론하곤 했다. 무니르는 1992년 당시 새로 입사한 여성변호사 풍끼 인다르띠(Poengky Indarti)를 휘하에 두고 있었다.

당시 4천여 전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노동운동단체의 후원까지 전략적으로 동원했던 이 비상한 소그룹의 이름은 “비키클럽”(Vicky Club)이었다. “비키클럽”(Vicky Club)은 디즈니 제품을 만들고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모임다운 이름이었다. 비키클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성한 자생적 조직이었고 비키클럽과 LBHS의 연대도 LBHS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비키 클럽이 주도했다. 비키 클럽이 결성된 뒤에 여러 노동운동단체들이 비키 클럽과의 연대를 희망하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비키 클럽은 LBHS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비키 클럽이 자체 판단과 필요에 근거하여 LBHS에 접근했다는 것이다(Poengky 인터뷰, 2001/03).

비키클럽은 파업을 감행하기로 결의하고 “거사일”(Hari H)을 10월 30일로 잡았다. 유인물 복사비, 플랜카드용 천과 페인트 구입비, 교통비와 식비 등에 사용할 파업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파업기금이 필요한 액수보다 많게 약 6십만 루피아(미화 약 300불)가 모금되어 모든 물품을 차질 없이 구비할 수 있었다. 파업전날(10월 29일) 밤에 메베를 비롯한 동료들은 마지막 회의를 하고 플랜카드와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 LBHS에 모였다. 무니르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

가 되었는가?” 라고 물었다. 노동자들은 “각오가 되어있다”고 답했다.

역할분담 회의에서 메빠에게 부여된 임무는 “빅토리 사원들의 요구”(LBHS 1993, 5)라는 유인물을 복사하고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파업을 홍보하는 일이었다. 한 페이지로 된 유인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적혀있었다.

- 일당 2,250루피아(당시 약 1불)의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 노동자사회보장보험(ASTEK)에 가입할 것.
- 교통비 500루피아 지급할 것.
- 식대 500 루피아 지급할 것.
- 명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것.
- 잔업수당과 휴일특근수당을 법대로 계산할 것.
- 채불된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
- 파업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
- 비인간적 임금 삭감(potongan)을 중단할 것.
- 작업중 재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해고를 중단할 것.
- 국경일에 휴무할 것.
- 법대로 생리휴가, 유급출산휴가, 연차휴가를 보장할 것.
- 각종 허가(ijin: 조퇴, 병가 등)의 조건을 완화할 것.
- 충분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지급할 것.
- 법정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할 것.
- 화장실 출입통제를 철폐할 것.
- 기도실을 설치할 것.
- 그 밖의 비인간적 처우를 중단할 것.

메빠와 노동자들은 10월 30일 새벽 4시 30분경 LBHS를 나와서 공장으로 향했다. 메빠는 집에 들어서 씻고(mandi) 옷을 갈아입은 뒤에 곧바로 복사집으로 내달렸다. 3천장을 복사하고 나서 여러 언론사에 전화하여 파업계획을 알렸다. 공장을 향해 급하게 뛰어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유인물을 무사히 나눠줄 수 있었다. 4천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가담했지만 파괴행위는 없었다.

몇몇 노동자들이 연설을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그늘에 주저앉아 “담소하는”(nongkrong) 온건한 파업이 전개되었다.

16인 노동자대표와 경영자는 파업 발생 후 7시간만에 최저임금 준수, 식대 300루피아 지급, 기도실 설치, 노동법 준수 등 16개항에 합의하였다. 협상장에 수라바야시(Surabaya) 인력부(Kandep: Kantor Departemen Tenaga Kerja) 관리, 시북부지구방위군(Kodim: Komando Distrik Militer) 정보장교(mayor inf.), 시북부경찰서(Kapolres) 간부, 인도네시아전국직장인조합(SPSI: 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수라바야지부 간부 등이 참석하고 “노사합의서”(LBHS 1993, 6-7)에 “증인”(saksi) 자격으로 공동 서명했다. 노사합의서에는 메빠가 서열 1위의 노동자대표로 언급되고 있다. 그녀가 노동자대표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거나 경영자 눈에 가장 돋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파업이 노동자측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메빠와 이맘은 열흘 뒤에 해고되었다. 해고의 내막은 이러했다. 파업이 비폭력적이었기에 경영자들은 파업주동자들을 형사사건으로 엮어 넣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교묘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한 관리자가 퇴근하려는 메빠를 사무실로 불러 보따리를 건네면서 인도네시아전국직장인조합(SPSI) 수라바야 지부에 전해주도록 부탁했다. 메빠가 보따리를 들고 정문 경비실을 지나려 할 때 다른 관리자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지금 밖으로 가져가려는 게 무엇이나고 묻고는 보따리를 풀어 보라고 지시했다. 풀어보니 보따리 속에는 직원명부가 들어있었다. 그 관리자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메빠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강제했다. 회사서류를 몰래 반출하려 했다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에 대한 징계로 메빠는 배치전환을 당했다. 세번째 배치전환되었을 때 메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리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11월 9일에 공식적인 이유의 부연 없이 이맘과 또 한 명의 노동자와 함께 메빠는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합의사항의 실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파업주동자들이 해고되자, 빅

토리사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날(11월 10일)부터 3일간 파업을 일으키고,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사항 이행, 그리고 화장실 출입카드를 조속히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자본의 반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빠르고 응집적인 대응은 비키클럽이 탁월한 리더십과 동원구조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회사측은 수라바야시 인력부사무실(Kandep)에서 열린 협상에서 합의사항 준수와 해고자 복직 외에 8개항을 추가로 양보하여야 했다.

합의사항만 본다면 노동자들이 또 한번 이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2차노사합의문”(LBHS 1993, 9-10)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1차 협상 때 참관한 시북부자구군행정단(Kodim)보다 상급기관인 수라바야시방위군 084부대(Korem[Komando Resort Militer] 084)의 정보장교도 처음으로 참관하고 합의문에 증인으로서 서명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두 번째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에 Korem 084 정보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한 주목할만한 사항은 회사측이 노동자대표들에게 노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전국직장인조합(SPSI) 수라바야지부와 협의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노동자대표들이 노조설립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반대하자 대표들도 노조설립을 거부하게 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해 왔고 그 기제가 ‘어용노총’ SPSI였다. 그래서 빅토리사 노동자들이 SPSI 지부 형태로 노조가 결성되는데 반대하였다고 한다(LBHS 1993, 3). 노조 설립을 노동자측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저의도 의심했을 수 있다. 회사측이 당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SPSI 수라바야지부를 통해서 노동자대표들을 우회적으로 포섭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측이 진정으로 노조를 원했던 것 같지는 않다. 5년 뒤인 1997년에 일부 노동자들이 SPSI 노조 결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때 바로 다음날로 경영자들이 노조 건설을 추진한 노동자들을 해고해 버린 사실이 이를

뒤틀림한다(Roika 인터뷰, 2000/07/25, 2001/04/12).

12월에 빅토리아는 또다시 분규를 겪었다. 조장들(mandor)은 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0여명의 조장들은 임금계산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LBHS의 무니르를 초청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일주일 뒤인 12월 20일에 거의 모든 조장(141명)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확정했고 모임이 끝난 뒤에 이맘과 메빼는 LBHS로 와서 이 사실을 무니르에게 “보고”했다. 24일에 부분적인 저항행동을 시도한데 이어서 28일에는 조장들 전원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파업을 유발했다. 한달 간격으로 발생한 세 번째 파업이었다.

그 다음날 시인력부 사무소에서 노사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협상문(LBHS 1993, 11-12)에 따르면 회사측은 밀린 잔업수당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고, 신년 휴가를 4일에서 6일로 늘리고, 휴가비를 지급하고, 임금계산 착오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자측 자료와 회사측 자료를 인력부에 함께 제출하고, 파업시 임금을 전액 지불하고, 이번 파업을 이유로 사측은 노동자측에 어떠한 억압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계속 파업이 발생하고 협상에서 번번히 노동자들에게 밀리자 회사측은 무언가 비상한 대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IV. 군부의 개입과 노동자 리더십의 단절

메빼, 이맘, 다스미야띠(Dasmiyati, 22세 여성노동자) 등 빅토리 노동자들은 12월 25~26일 양일간 LBHS가 주관한 “파라레갈”(Paralegal)이라는 노동자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원한 도시”(kotadindingin) 말랑(Malang)의 LBHS 분소에서 1박 2일간 진행되었고 수라바야, 그레스릭(Gresik), 마두라(Madura), 말랑에서 온 10여명이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토론주제는 경제발전(6시간), 최저임금(3시간), 조직결성의 자유(5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현장고발성 만화를 그려서 서로 돌려보고 노래를 함께 부르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나서 조장들의 파업(28일)이 있었고, 덕분에 신년휴가가 4일에서 6일로 늘어났다. 휴가를 앞두고 모두가 들떠있었던 12월 31일 아침 10시경에 인사부장 하디(Masrihadi)는 메빠, 이맘, 다스미야띠를 마이크를 통해 호출했다. 하디는 임금계산방식 개선에 대해 협의하러 인력부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노동자들은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며 난색을 표했으나 인사부장은 인력부에 일단 가서 설명을 듣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인사부장과 함께 녹색 끼장(Kijang) 승합차에 올라탈 때 3명의 군인들이 동승했다. 진행방향이 인력부 방향이 아님을 감지하고 이상하게 여긴 메빠가 “방향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자 하디는 “잠자코 있어라”며 묵살했다. 이렇게 하여 메빠가 “쓰디쓴 비극”(tragedi yg pahit)이라고 표현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세 명의 노동자들이 끌려간 곳은 수라바야시방위군 084부대(Korem 084)였다. 군인들은 이들을 “도둑놈(년)”(kamu maling!), “양아치들”(kamu bajingan!)이라고 부르면서 구타하기 시작했다. 메빠와 다스미야띠는 “마치 중죄인처럼 맞고 또 맞았고” 이맘은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군인들에게 돌아가면서 맞았다.” 이들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나서 인사부장 하디는 돌아갔다.

오후 3시가 되자 군인들이 밥을 주고는 씻으라고 했다. 메빠는 갈아입을 옷이 없다며 씻기(mandi)를 거부했다. 5시부터 세명은 각각 분리된 감방에서 신상명세부터 시작되는 기나긴 심문을 받았다. 새벽 1시가 되자 메빠는 용기를 내어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메빠는 새해아침에 부모님께 인사(sungkem)도 못드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납치된 노동자들이 의자에서 잠이 들었을 때, 이들을 찾아 나선 가족들은 관리자의 집을 방문하여 해명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새벽 3시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날이 밝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LBHS 활동가들은 신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종사건에 재빨리 대응할 수 없었다(LBHS 1993).

다음날 아침에 Korem 084의 부대장이 출근하자마자 “어떤 애가 집에 보내달라고 했느냐”면서 버럭 화를 냈고, 메빠에게 “낮짜 두꺼운 년”(wong kamu itu orangnya ndablek mokong)이라며 욕을 했다. 다시 시작된 심문에서 조사관은 “말랑에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빠라 레갈의 뜻이 무엇이나”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들이 왜 잡혀오게 되었는지가 분명해졌다. 메빠는 모른다고 버텼지만, 질문의 구체성으로 볼 때 군인들은 말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다스미야띠와 메빠는 일어나 샤워(mandi)를 한 뒤에 다시 잠을 청했다. 이 때 시스완디(Siswandi)라는 군인이 들어와서 다스미야띠를 강제로 눕히고 범했고, 시스완디의 동료도 뒤이어 다스미야띠를 범했다. 다스미야띠가 그대로 누워있자 시스완디는 자전거바퀴살(jari-jari)로 다스미야띠의 엉덩이를 쿡쿡 찌러대며 아침을 먹으라고 했다. 다스미야띠가 참았던 화를 발각 내자 군인들은 상부에 일러 보았자 자기들보고 잘 했다고 할 것이라며 껄껄대고 웃더니 샤워하러 갔다. 그렇게 22살의 다스미야띠는 능욕을 당했고 메빠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7시 30분경에 군인들은 노동자들에게 갈아입으라면서 군복을 주고는 옷을 빨게 했다. 정보장교는 이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아놓고 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메빠와 동료들은 “우리가 겪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발설하지 않겠다”고 쓰고는 서명했다. 정보장교는 다 음과 같이 훈계했다.

너희들은 이전과 같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권리(hak)를 주장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외부 배후조종세력(pihak luar yang mendalangnya)의 개입 없이 순수한 방식(jalan murni)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셋은 그저 “그러겠다”(iya)고만 답했다. 오후 3시경에 군인들은

교통비로 쓰라며 1만 루피아(당시 미화 5불)씩 나눠주고는 귀가를 허락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메빠는 서둘러 짐을 챙겨 “빠라레갈”에 참석했던 친구 한 명과 함께 발리(Bali)로 여행을 떠났다.

구금된 노동자들이 풀려난 뒤에야 LBHS의 무너르는 그들이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노동자대표 3인 실종사건보고서”(LBHS 1993)를 작성하여 언론에 폭로하였다. 그러나 LBHS의 폭로가 Korem 084에게 위협적이지 못했고 파업주동자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없었다. LBHS의 풍기는 메빠와 이맘이 말랑에서 “빠라레갈”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실을 동료들에게 자랑했으며, 이런 이야기가 관리자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군인들에게 납치되게 되었다고 추정했다. 노동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지 않은 것이 LBHS의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Poengky 인터뷰, 2001/03).

1993년 1월 7일에 메빠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근했다. 공장의 상황은 삼엄했다. 관리자들은 노동자대표 16명의 잘못(kesalahan)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메빠와 동료들은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 인사과에서는 노동자대표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노동자모임에서 기금을 모금한 이유를 캐물었다. 메빠와 이맘은 복사비를 지불하고 해고자들이나 집안에 상을 당한 동료들에게 위로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다 쓰고 남은 돈은 한푼도 없다고 답했다.

메빠는 매일 몇 시에 출근하고 화장실에는 몇 시에 가고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체크당하면서, 20일간 견뎌내 관리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메빠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1월 26일에 카메라를 들고 출근해서 그간에 가까이 지냈던 조장들과 경비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그리고는 관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대로 회사를 나와버렸다. 오후 2시가 되자 인사부장은 나머지 15명의 노동자대표들을 하나씩 불러서 해고통지하고 해고금을 지불했다.

그날 밤 11시에 인사부장 등 네명의 관리자가 메베의 집을 찾아왔지만 메베는 친구집에 가고 없었다. 다음날 점심나절에도 두명의 관리자가 찾아왔지만 메베를 만날 수 없었다. 삼일째에 부모의 설득 덕분에 관리자들은 메베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회사에 와서 해고금을 받아 가라고 말했고 메베는 거절했다. 그러자 그들은 회사로 돌아가 해고통지서와 해고금 142,000루피아(약 70불, 1년 근무경력자의 해고금)를 가져와서 메베에게 전달했다. 해고금을 전해주면서 관리자들은 한마디 충고를 잊지 않았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 간에 빅토리에서 한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러자 메베는 “내가 어디서 일하든 간에 회사의 상황과 조건을 반드시 살필 것이고, 만약 정부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회사측과 평화적으로 느긋하게(santai) 협의할(memusyawarahkan)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그러자 관리자들은 그저 씩 웃었다.

메베는 이렇게 관리자들을 상대하면서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았지만 그녀가 받은 상처는 의외로 컸던 것 같다. 수기의 마지막 장에 메리 안다니(Merry Andani)의 유행가요 “이별의 벽”(Dinding Pemisah) 가사 전문을 적어놓았는데, 그녀의 슬픈 심경과 장차의 삶을 암시한 듯한 구절이 있었다.

이 차가운 밤에 (Di malam dingin ini),,

나는 홀로 앉아있다 (Kududuk seorang diri),

...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Tak ingin kubercinta lagi),

나를 환상 속에서 살게 했던 그런 사랑을 (Yang membuatku hidup di dalam illusi),

모든 것을 과거로 보낸다 (Biarlah semua berlalu).

LBHS의 활동가의 회고에 따르면, 이맘은 해고된 뒤에 베짜(beca: 삼륜자전거택시) 운전을 했는데 빅토리 근처에 자주 나타나 친구들에게 회사 일을 자꾸 캐물어서 빅토리 노동자들이 그를 멀리 했다. 어쨌든

다스미야씨는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었다. 매씨는 빅토리 공장에 인접한 목재공장에 취직했고 조장(mandor)으로 승진했지만, 빅토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유독 쌀쌀맞게 대해서 옛 동료들마저 그녀를 무서워했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는 아무도 없었고 이들의 조직 “비키클럽”은 완전히 해체되었다(Poengky 인터뷰, 2001/03). 수천의 직원들을 이끌고 세 번의 연속 파업을 성사시킬 정도로 용감했던(berani) 현장노동자 리더십(tokoh buruh : working-class leadership)은 이렇게 단절되었던 것이다.

노동자 리더십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단절되었지만 LBHS는 공격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무니르와 풍끼는 빅토리아 뿐만 아니라 역내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후원했지만 단 한번도 조사받거나 투옥된 적이 없다. 군부는 1992년 빅토리아 파업과 LBHS의 무니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LBHS나 무니르 개인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공격도 가하지 않았다. 무니르는 수하르토 퇴진 국면에서 실종자대책위원회(KontraS)를 창설하고 수하르토 정권과 군부에 “용감하게”(berani) 맞서고 민주화 이후에는 세계적인 인권상을 연거퍼 수상하면서 인도네시아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빠라레갈” 프로그램에 동행했던 LBHS의 풍끼 역시 특별한 탄압을 받지 않고 법률구조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지역 군부의 장교들이 LBHS를 방문하여 풍끼를 찾아온 적이 한번 있었으나 다른 활동가들이 풍끼가 지금 없다고 하여 돌려보냄으로써 위기를 모면했고 그 후 장교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Poengky 인터뷰, 2001/03). 풍끼는 LBHS의 노동분과장과 총무부장의 요직을 거치고 민주화 이후에는 인도네시아법률구조재단(YLBHI) 전국중앙의 노동분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자카르타로 진출할 수 있었다. 풍끼는 납치사건이후부터 빅토리아의 노동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1998년 민주화 이행기 때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여성노동자들을 후원하고 결국 노조 건설에 성공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V. 맺음말

수하르토 시대에 빅토리아 노동자들의 파업행동은 조직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타협적인 빅토리아 경영자는 노동자리더십을 축출시키기 위해 지역의 군부를 동원하였다. 빅토리아 경영자는 찬조금(sumbangan) 형식으로 군부의 폭력을 구매했을 것이다. 군부는 세 명의 노동자대표를 납치하고 폭력을 구사하였다. 이 노동자대표들은 해고되었고 결국 노동운동을 그만두었다. 따라서 군부의 개입은 노동자저항을 단발성에 그치게 만들고 '조직화 없는 저항'으로 국한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빅토리아의 사례를 볼 때, 개별기업과 군부의 협력은 지엽적인 성격을 보였다. 지엽적이라는 뜻은 개입의 목적이 기업단위의 노동자대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지 그 배후의 노동운동단체 활동가들까지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합법성과 국제연대로 무장한 노동운동단체를 자칫 잘못 공격했다가는 국제적인 인권압력을 야기할 수 있고 골치 아픈 법정 대결을 거치게 될 수 있다. 노동자대표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자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군부와 개별기업의 협력은 도구적이었다. 도구적이라는 뜻은 협력이 이념적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성격의 협력이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지역군부는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절반 정도의 재정을 자체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직접 소유한 사업체들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찬조금도 받는다. 산업도시의 주요 물주는 민간 제조업체의 자본가들이었고 노사분규의 발생이야말로 군이 기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군부의 입장에서 노사분규는 환영할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산업평화보다는 금전수입에 관심이 많은 지역 군부는 노동운동단체를 조직사건으로 엮어서 지역 노동운동 전체를 일소하는 것보다 노사분규 각각에 대해 개입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요컨대 개별 기업가들과 지역 군부의 협력이 노동자 조직화를 억누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협력의 성격이 지엽적이고 도구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노동운동단체의 소수 활동가들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수하르토 체제 말기의 10년간 노동운동단체의 활동과 산발적인 노동자저항이 지속되었지만 조직화 수준은 극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런 민주화를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운동단체의 존속과 노동자저항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하르토 시대의 노동운동 역량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되며 노동자 리더십이 억압받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 Mass. et al.: Addison Wesley.
- Indarti, Poengky. 1998. "Thoughts of a Few Indonesian Workers." *Asian Labour Update* 26.
- LBHS (Lembaga Bantuan Hukum Surabaya : 수라바야법률구조재단). 1993. "Kronologi Hilangnya Tiga Orang Tokoh Buruh(노동자 대표 3인의 실종기)." 기자회견용 자료 클리핑.
- Meppy Doryati Emping. 1993. "Tragedi yg Pahit(쓰디쓴 비극)." 파업 수기.
- Partun. 1995. "PT. Victory(빅토리사)." 노동실태를 기록한 노트.
- PT. Victory Long Age Indonesia. n.d. *Company Profile : PT. Victory Long Age Indonesia*.

인터뷰

Lee Yuh Lin (남), 빅토리아 부사장, 2001년 4월 12일.

Poengky Indarti (여), 전 수라바야지부 노동분과장, 2001년 3월.

Roika (여), 빅토리아 노조(1998년에 설립) 부위원장, 2000년 7월 25일,
2001년 4월 12일.